

‘檢 조사 무산’ 송영길 “주변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하라”

민주 2021 전대 돈봉투 의혹...검찰, 자진 출두 했지만 돌려보내
A4 5장 분량 입장문 “집·측근들만 압수수색...녹취록 신빙성 없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나 조사를 받지 못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검사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며 청사 로비에서 돌려보냈다. 10여 분만에 청사 밖으로 나온 송 전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작성한 표정으로 읽어내리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항변했다. 송 전 대표는 “귀국한 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며 검찰을 향해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세요”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전국대처 수사’, ‘인생털이 수사’, ‘인격살인’, ‘이중 벌금 수사’, ‘홍선용 정치 수사’ 등으로 규정하며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협박하고 억박지르는 잔인한 수사 행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수사 시작 전 피의사실이 유출돼 언론에 공개돼 매일매일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는 행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일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왜 검찰 수사를 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장관의 하명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수사가 되고 있다”며 “이재명 수사가 별 효과도 없고 윤석열 정권의 대마·대일 굴욕 외교와 경제 무능으로 민심이 계속 나빠져서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해야 할 특수부가 야당 수사에만 올인해서야 되겠느냐”며 “불국필반(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 과유불급이다. 민심 이반을 검찰 기획수사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 피의사실을 기정사실로 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리와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등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당대회 금품 수수 사건 때처럼 공판수사1부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선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다급해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저의 집과 측근들을 압수수색했다. 인디언 기우제처럼 뭉개 나올 때까지 하는 마구잡이식 수사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연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자신의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먹사연)를 통한 개인적 자금 조달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두고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먹사연 회원이자 고문으로서 회비와 후원금을 냈지,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먹사연 회계담당자가 최근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선 “참고인·일반인의 출국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는 것은 검찰이나 법무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해당 언론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발로 한국으로 오지 않았느냐”며 “한번 살다 죽는 목숨이다. 권בל 5년이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유관석 의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총 9400만원의 당내에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먹사연)의 기부금 등을 경선캠프 자금으로 동원한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캠프 관계자 등을 조사해 자금 조달·전달 과정을 규명한 뒤 송 전 대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은, 대통령 회담 제안에 “이재명 대표 먼저”

尹-여야 원내대표 회동 거절...“내년 총선 전략은 중도 확장”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도 확장’을 내년 총선 전략의 화두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민주당의 방향과 목표는 확장적 통합이다. 확장하고 통합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면서 “나라와 국민께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 또 찾고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나온다. 유능함은 정책에서 비롯된다. 결국 확장성의 관건은 가치와 비전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동절인 어제 국민들께 말씀드린 말씀이 학부모를 위한 주 4일제 추진이 그 예”라면서 “특히 경제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민주당은 전세 사기를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면서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구제의 사각지대를 남겨서 피해자들을 또 한 번 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은 매번 사람이 잔혹하게 세상을 등진 뒤에야 답을 내렸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광은 원내대표는 이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을 거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박광은 원내대표를 예방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 난을 전달했다. 두 사람의 비공개 회동이 끝난 후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진복 수석)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면담을 제안했다”며 “박광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했다. 박광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거절 의사를 전하자 이진복 수석은 더 권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만남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의당, 차기 원내대표 9일 선출

배진교 원내대표 연임 의사...장혜영 의원과 경쟁

정의당이 오는 9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정의당은 창당 후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며 원내 대표직을 맡아 왔다.

당 대표까지 지낸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 21대 국회에서 아직 원내대표를 지내지 않은 의원은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다.

류 의원이 장 의원을 지지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장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배진교 의원이 다시 한번 원내대표를 맡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을 지지하는 측은 류 의원과 함께 30대 원내지도부가 전면에서 재창당 작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인선 남동구정장을 지내는 등 언론과 정치적 경력에서 앞서는 배 의원이 적임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두 번이나 원내 대표를 지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재옥·박광은 “좋은 파트너 되자”

국힘-민주 신임 원내대표 첫 회동...법안 신속처리 공감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신임 원내대표가 2일 첫 공식 만남을 갖고 협치를 다짐했다.

여야 대선 공동 공약 가운데 정점이 없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지는 데도 공감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인사차 이날 오후 국회 국민회의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윤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신임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다.

약수와 함께 시작된 회동은 덕담을 주고받으며

회기에애한 분위기속에 약 25분 간 진행됐다.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언론에 ‘여야의 대선 공동 공약 130여 개 중 정점 없는 법안부터 합의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을 먼저 언급하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말씀을 들어보니 ‘윤 원내대표의 생각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하는 느낌을 확인해 더 다행스럽다”고 화답했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